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6호

2024.05.23(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권현구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6차 지부교섭 : 사측 제시안 없음]

어느 사업장도 예외 없다!

전체 사업장 일괄 공동제시안 제출해야



매년 총주만 오면 3분 교섭

올해도 총주 KDK에서 열린 지부교섭이 3분 만에 끝났다. 매년 총주 KDK에만 오면 지부교섭이 빈손으로 끝나서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다. 23일 (목) 총주 KDK에서 6차 지부교섭이 열렸지만 회사측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3번에 걸쳐 열띤 질의응답을 거쳤지만, 사측 교섭위원들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3주동안 질문했던 열의는 어디로 갔나?

올해 지부교섭 질의응답은 역대급이었다. 3차례에 걸쳐 26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만큼 기대감도 커졌다. 사측이 올해는 진짜 제대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바로 물

거품이 됐다. 질문을 쏟아내던 열정은 제시안을 제출해야 할 때가 되니 갑자기 사라졌다. 다시 예년의 핑계가 되 돌아왔다. “여러 개의 회사들이 상황과 입장이 달라서 공동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전체 사업장 일괄 공동안 제시하라

그동안 지부교섭에서 몇몇 사업장이 억지를 부려서 전체 사업장이 공동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적이 있다. 권현구 지부장은 올해는 그런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권 지부장은 차기교섭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공동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 사업장이라도 열외하려고 하면 지부교섭 합의는 없다.

6차 교섭 속기록

매주 교섭 때마다 어렵다는 얘기 반복하지 말자!

사 : 멀리서 충주에 있는 우리 회사(한국KDK)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영업상황이 어렵고 원자재 구리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 빨리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단합해서 난관 극복했으면 한다.

노 :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충주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다. 사측 교섭위원들이 매주 교섭장소 바뀔 때마다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멘트 좀 바뀌보셨으면 좋겠다. 어렵다는 얘기 보다는 교섭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바뀌보시길 바란다. 뉴스 보니 가게 빛이 1,800조라고 한다. 노동자 서민 삶이 힘들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올해도 노사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만큼 올해는 충분히 인상되어 노동자 삶이 나아지면 좋겠다. 사측 교섭위원도 임금인상 등 교섭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 바란다.

사전 간사 협의 통해서 사측 제시안 제출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다. 질의응답도 많이 가졌고 멀리 충주까지 온 만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차기에는 성의있는 제시안 마련해주길 바란다.

노 :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제시안 없이 3분만에 교섭이 끝났다. 이게 교섭인가? 다음 7차 교섭에서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노 : 사측 교섭위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도착하신

것 보니 같이 점심 드시고 오셨나 보다. 한은시스템지회는 매각 때문에 바쁘고 오늘도 일정이 많은데 제시안 있을 줄 알고 급하게 달려왔다. 그런데 허탕치고 가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다음 차수에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사 : 제시안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지난 화요일에 실무자들 모여서 논의했다. 질의응답을 3주차 했다. 3주 걸쳐서 질의한 것은 그만큼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9개 회사 의견을 모아서 공동안을 내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늦어지는 만큼 조합 측에서도 이해를 해주면 다음 교섭에서는 조금이라도 제시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하겠다.

노 : 예년에 어떤 사업장은 별도의 합의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 절대 없다. 특정 사업장은 제외하는 내용이면 지부에서 합의 안한다. 전체 사업장 하나로 일괄된 안을 제시해달라.

* **차기교섭 :** 5/30(목) 14:30 지부 대회의실